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연구*

이주연**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using a Day-care Center

Lee, Joo Yeon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시설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양육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양육죄책감, 교사의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양육효능감, 보육만족도

* 본 논문은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1저자(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idscot@chonnam.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 중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는 매우 획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중심의 가정양육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보육복지의 보편화로 인해 타인중심의 기관양육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은 대개 직장을 가진 취업모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무상보육의 영향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타인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늘고 있어 어린 영유아 시기부터 타인보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만 3세 미만의 영아 1,318,869명 중 57.6%에 해당하는 759,778명만이 부모에 의해 단독양육되었고, 나머지 약 40%에 이르는 비율이 타인보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만 3세 이상 5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1,779,441명 중 19.3%에 해당하는 344,201명만이 부모에 의해 단독양육되고, 나머지 약 80%에 이르는 비율이 타인에 의해 보육된다는 사실은(국가통계포털, 2010) 부모에 의한 양육보다 오히려 타인양육이 더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부모에 의한 단독양육이 아닌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개별 타인양육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시설보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중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486,980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의 약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설에서의 양육이 영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많은 보육관련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 관련 연구들은 시설의 일차적 이용자인 영유아에 초점을 두어 개별프로그램(김숙자, 김윤이, 2011; 김영옥, 2009; 박찬화, 나중혜, 권연희, 최목화, 2013)이나 시설의 질(이옥, 2002; 지성애, 2007)또는 기관에의 적응(김영희, 강기숙, 한세영, 2008; 신현정, 2006; 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2)과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룬다. 한편, 보육시설의 또 다른 이용자인 부모에 초점을 둔 연구는 대부분 시설만족도에 관한 연구(김효민, 박정운, 김양희, 2006; 이애련, 2006; 이주연, 이사라, 2006)이며,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응이나 경험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비록 공보육의 정책화에 의해 보육시설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여전히 가정중심, 어머니중심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해 미안함이나 타인양육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머니 자신이 취업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타인양육 및 시설양육을 선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한다(김나희, 2011; 백영숙, 2007; 성정원, 2011).

어머니가 양육의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역할수행, 그리고 양육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족함이나 미안함과 죄의식 등을 양육죄책감이라 한다(성정원, 2011; Rotkirch, 2009).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낮은 양육효능감(김정아, 2008)은 물론 비밀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과잉보

호적인 부정적 양육행동(김명희, 2011; 김영호, 2004; 신민호, 1996; 장인숙, 2001; Cooklin, Giallo, D'Esposito, Crawford, & Nicholson, 2013; Hsu, 2004)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양육죄책감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많은 경우, 양육죄책감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김기현, 강희경, 1997; 김혜진, 2005; 박봉주, 2006; 이윤선, 2008; Weinberg & Richardson, 1981). 또한 양육죄책감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 없이 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후회와 죄책감을 다루거나(김정아, 2008), 상황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더라도 분석 및 해석 시에는 각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장인숙, 200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죄책감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김기현, 강희경, 1997; 성정원, 2011; 장인숙, 2001). 따라서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중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보육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들에서 소개된 양육죄책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느끼는 후회나 가책, 미안함 등의 정서로 정의된다(Rotkirch, 2009). 이러한 개념정의는 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타인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특정 경험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죄책감은 이보다는 더욱 구체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양육에 의한 죄책감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자녀와 일정시간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이기 때문에, 양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기술의 부족이나 의도하지 않은 양육행동에 대한 후회 등의 감정과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양육 또는 시설양육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죄책감은 자녀와의 분리라는 특정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격리불안의 개념과 일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자녀와의 분리 및 타인양육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연구한 Hock(1984)은 분리상황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걱정과 슬픔, 또는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격리불안의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이 영유아의 관점에서 격리불안을 연구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의 관점에서 격리불안을 접근한 것으로, 자녀와의 일상적인 분리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둔다(Hock & Lutz, 1998; Hock, McBride, & Gnezda, 1989; Lutz & Hock,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과 일정부분 유사하다. 다만 타인양육 및 시설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은 격리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역할불이행에서 오

는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타인양육 및 보육시설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일상적 분리상황을 경험하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에 대한 가책이나 미안함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적정 수준의 양육죄책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비슷하게 양육자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긴장감을 주고 객관적인 판단과 반응을 통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희경, 2012). 그러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은 심리적인 불안이나 의욕상실 등을 야기하며(오연주, 2009) 따라서 양육에서 오는 죄책감은 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oklin et al., 2013). 이에 양육죄책감의 경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양육죄책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김나희, 2011; 김명희, 2011; 김은영, 2013; 김정아, 2008; 김정임, 2009; 백영숙, 2007; 장인숙, 2001; Mann & Thornberg, 1987)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육죄책감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취업여부를 들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김정임(2009)은 20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가장 높고 30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나희(2011)와 김명희(2011)는 어머니 연령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선행연구들 간에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변인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 어머니보다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인다는 결과(김나희, 2011)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김명희, 2011; 김정임, 2009)가 공존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더 많은 양육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지만(김나희, 2011; 김명희, 2011; 김은영, 이주연, 2014; 김정아, 2008; 백영숙, 2007; 장인숙, 2001),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박희진, 문혁준, 2012).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와 관련된 변인 중, 자녀수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김나희, 2011). 자녀의 연령(월령)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며(Mann & Thornberg, 1987), 연령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김나희, 2011; 김은영, 이주연, 2014; 김정임,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양육죄책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연령대의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과 관련한 시설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육죄책감의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성경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영아와 유아의 발달연령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이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나 이유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및 보육관련 배경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일과 함께,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일은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죄책감과 관련 있는 주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존감이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요인을 제시한다. 양육죄책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녀와의 일상적 분리상황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격리불안에 대해 연구한 McBride와 Belsky(1988)는 격리불안이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중 특히 어머니의 자존감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설명하였다. 즉,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격리불안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송진숙, 조복희, 1997).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르게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김정아, 한세영, 그리고 김연화(2008)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즉,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유아의 대인적응성, 사회적 참여, 인기도/지도력과 같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양육죄책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양육죄책감이 선행변인인지 혹은 양육효능감이 선행변인인지의 인과성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죄책감이 양육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죄책감이 아닌 시설보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죄책감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인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해당 변인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느끼는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비록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지원 서비스(김현옥, 김경호, 2009)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김정임, 2009), 그리고 보육시설 만족도(김나희, 2011)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양육의 부담이나 어려움 및 양육죄책감을 경감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중 보육시설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죄책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이기 때문이다. 김나희(2011)에 의하면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죄책감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양육에 따른 어머니의 죄책감은 보육시설이나 보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꼽을 수 있다. 교사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는 양육대리자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만족이나 신뢰도, 그리고 교사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 정도가 다르다는 박성옥(1994)의 연구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협력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

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죄책감을 연구함에 있어, 양육대리자인 보육교사의 역할지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맡기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은 단순히 자녀와 일정시간 떨어져 있다는 점 이외에 그 시간동안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포함한다. 만약 보육시설에 자녀가 맡겨지는 시간 동안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사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인식한다면 그들의 양육죄책감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교사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서적 지지나 일상적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지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의 개념에서, 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노력을 양육죄책감의 또 다른 영향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 중 특히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타인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보육시설만족도라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변인 이외에 교사-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노력과 지지 정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취업여부) 및 보육관련 변인(보육시간, 보육이유)의 특성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 및 전남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5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영유아 어머니 및 그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22세부터 4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가 10.6%(37명), 30대가 77.1%(270명), 40대가 12.3%(43명)로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37.5%(13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35.4%), 전문대졸(25.7%)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가 55.1%(193명)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여아가 51.7%로 약간 더 많았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를 첫째아와 둘째아 이하로 구분하였을 때, 둘째아 이하가 59.4%(208명)로 첫째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은 만 0세에서 만 6세의 분포를 보였고 만2세 미만인 영아의 비율이 약 30%, 만 3세 이상의 유아 비율이 약 70%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조사대상 어머니의 가계 월평균 수입은 201만원~300만원이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200만원 이하와 301만원~400만원의 비율이 약 23%로 비슷하

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50)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어머니 연령	20대	37(10.6)	자녀연령	0-12개월 미만	9(2.6)
	30대	270(77.1)		12-24개월 미만	36(10.3)
	40대 이상	43(12.3)		24-36개월 미만	56(16.0)
어머니 학력	중졸	5 (1.4)	월평균 가계수입	36-48개월 미만	76(21.7)
	고졸	124(35.4)		48-60개월 미만	79(22.6)
	전문대 졸	90(25.7)		60-72개월 미만	51(14.6)
	대졸 이상	131(37.5)		72-84개월 미만	43(12.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93(55.1)	월평균 가계수입	200만원 이하	82(23.4)
	미취업	145(41.4)		201-300만원	109(31.1)
자녀성별	남아	169(48.3)	월평균 가계수입	301-400만원	79(22.6)
	여아	181(51.7)		401-500만원	42(12.0)
자녀 출생순위	첫째아	142(40.6)	월평균 가계수입	501-600만원	21 (6.0)
	둘째아 이하	208(59.4)		601만원 이상	17 (4.9)

주. 결측치로 인해 변인별 사례수의 합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1)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장인숙(2001)이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한 양육죄책감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죄책감 보다는 기관보육 및 타인양육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된다” 등을 포함한다. 6개의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2)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Owen, Ware, 그리고 Barfoot(2000)이 제작한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 부모용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참여를 측정하고 있는 원 척도는 정보공유 5문항, 정보추구 3문항, 성인관계 6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공유는 “내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교사에게 말해준

다” 등과 같이 자녀의 성격이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호작용 노력을 의미한다. 정보추구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자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으로 “내 자녀가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기분이 어떠했는지 교사에게 물어본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인관계는 어머니와 교사가 일대일 관계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양육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보육활동에 참여하여 교사의 역할을 지원하거나 교사의 행동을 칭찬하고 또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또한 교사와 자녀양육 문제를 논의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정보적 지원을 또 다른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위에 제시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14문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다. 즉, 정보추구 3문항과 성인관계 중 교사와 보육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2문항 등 총 5문항을 제외한 9문항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역할을 평가하는 등 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노력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들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9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는 신숙재(1997)의 사회적 지지척도 12문항 중 물질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존경, 애정, 신뢰, 인정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5문항과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3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지지의 구체적 문항 예로는 “나의 자녀에 관한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며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 를 들 수 있으며, 정보적 지지는 “자녀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보를 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8개의 교사 지지 문항들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과 .88이었다.

4)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ron과 Wacht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신숙재(1997)의 양육효능감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로서 느끼는 역할 기대감 7문항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및 해석방식은 불안감 문항을 역채점 후 기대감 문항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원 척도 전체 16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5이다.

5) 보육만족도

보육만족도는 보육환경의 물리적 시설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교사의 전문성과 애정, 보육시설과의 접근성 등 4개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이다(1점)’ 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4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다.

6) 기타 변인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가계 월평균 수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를 질문하였다. 또한 보육관련 변인으로 하루 평균 보육시간, 보육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 및 전남 소재의 어린이집 13곳을 통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총 500부의 설문지를 영유아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이 중 392부가 회부되어 78.4%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하고 3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t=2.03, p<.05$)과 출생순위($t=3.53, p<.001$)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하루 평균 보육시간 및 보육이유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만 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M=2.34, SD=.74$)이 만 3세 이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M=2.18, SD=.66$) 보다 더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어머니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아의 어머니($M=2.38, SD=.74$)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M=2.12, SD=.63$) 보다 더 많은 양육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

변인	집단	N	M	SD	t/F
자녀연령	36개월 미만	101	2.34	.74	2.03*
	36개월 이상	249	2.18	.66	

출생순위	첫째아	142	2.38	.74	3.53***
	둘째아 이하	208	2.12	.6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93	2.22	.72	.20
	미취업	145	2.21	.64	
보육시간	6시간 이하	65	2.22	.74	1.75
	6-8시간	183	2.17	.62	
	8시간 이상	102	2.33	.76	
보육이유	맞벌이	157	2.27	.73	1.37
	자녀교육	150	2.16	.67	
	부모요구	43	2.31	.59	

* $p < .05$, *** $p < .001$

2.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자녀연령($r = -.16$, $p < .01$), 출생순위($r = -.19$, $p < .001$), 양육효능감($r = -.18$, $p < .01$), 교사의 정서적 지지($r = -.21$, $p < .001$), 교사의 정보적 지지($r = -.11$, $p < .01$), 그리고 보육만족도($r = -.18$,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의 경우, 자녀연령과 출생순위 변인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차이검정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

변인	1	2	3	4	5	6	7	8	9
1. 자녀연령	1.00								
2. 출생순위	-.01	1.00							
3. 어머니취업여부	-.09	.04	1.00						
4. 보육시간	-.01	-.06	-.31***	1.00					
5. 양육효능감	.01	.19***	.05	-.09	1.00				
6. 교사의 정서적 지지	-.14**	.03	-.05	-.01	.06	1.00			
7. 교사의 정보적 지지	-.06	.02	-.06	.01	-.03	.53***	1.00		
8. 적극적 상호작용	-.11*	.01	-.10	.04	-.01	.35***	.34***	1.00	
9. 보육만족도	-.15**	.07	.02	.07	.06	.27***	.19***	.19***	1.00
10. 양육죄책감	-.16**	-.19***	-.01	.06	-.18**	-.21***	-.11**	-.01	-.18**

* $p < .05$, ** $p < .10$, *** $p < .001$

본 상관분석 결과 및 차이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를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효능감과 교사의 지지 및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협력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보육만족도 변인을 3단계 보육관련 변인으로 묶어 3단계에 함께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어머니 간 협력관련 변인군이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와 관련된 기본가정 및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Durbin-Watson의 *d* 통계치가 1.989로 2에 가까운 수치를 가짐으로써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상관분석결과(〈표 3〉 참조),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53 이하의 값으로 분포되었고, *VIF* 값이 1.04~2.05로 10이하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양병화, 2008).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를 통제된 상태에서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죄책감 변량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과 양육효능감이 양육죄책감을 설명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01, p<.001$). 교사-어머니 간 협력관련 변인군이 투입된 3단계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08, p<.001$). 교사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등 3단계에 투입된 3개 변인은 양육죄책감 변량의 7%를 설명함으로써, 모형 3의 모든 변인들은 양육죄책감의 총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만족도 변인이 투입된 모형 4의 전체 회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14, p<.001$). 모형4의 전체설명변량은 19%였으며 이 중 보육만족도 변인의 설명량은 3%로 나타났다. 모형4를 중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는 양육죄책감에 주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이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beta=-.21, p<.01$)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만족도($\beta=-.15, p<.01$)가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효능감($\beta=-.12, p<.01$)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beta=-.12, p<.01$)은 동일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의 정보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자녀연령	-.07	-.16**	-.07	-.15**	-.08	-.18***	-.09	-.20***
자녀출생순위	-.17	-.19***	-.14	-.16**	-.14	-.16**	-.13	-.16**
양육효능감			-.20	-.15**	-.18	-.13*	-.17	-.12*
교사의 정서적 지지					-.26	-.24**	-.22	-.21**
교사의 정보적 지지					-.05	-.05	-.06	-.06

적극적 상호작용			-0.11	-0.11	-0.12	-0.12*
보육만족도					-0.17	-0.15**
<i>F</i>	10.98***	10.01***	9.08***		9.14***	
ΔR^2	.07***	.02**	.07***		.03**	
<i>R</i> ²	.08	.09	.16		.19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최근 우리 사회는 무상보육과 같은 공보육 정책의 확대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어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한다(조혜자, 방희정, 2005). 뿐만 아니라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 수행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Baruch & Barnett, 1986).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350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의 역할과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함께 교사의 정서적 및 정보적 지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등 양육죄책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가 유아보다는 영아인 경우에 더 높은 양육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의 월령이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더 많았으나(김나희, 2011; 김은영, 이주연, 2014; 김정임, 2009), 본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룬 양육죄책감의 조작적 정의가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 시에 느끼는 죄책감으로 한정하여 양육죄책감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유아 어머니들에 비해 영아 어머니들이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영아 어머니들의 경우 어린 자녀를 자신이 직접 돌보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14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처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더 높은 죄책감을 보고한 것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영아는 유아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집단보육되는 경우 질병에 대한 노출이나 안전사고에 더 취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보육 및 집단보육에 더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는 애착형성의 주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들은 더 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영아와 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에서의 차이도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아에 비해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교육적 경험을 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다(국가통계포털, 2010). 이는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양육의 목적과 더불어 교육의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사정에 의한 선택이외에 자녀의 사회성 향상이나 교육적 목적에 의한 적극적 선택일 가능성도 크다. 반면, 영아의 경우는 교육의 목적보다는 육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대리양육의 목적이 주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와 달리 영아의 시설이용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더 높은 죄책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분석 결과, 둘째 이후아 보다는 첫째아의 어머니들이 더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의 순위에 따른 자녀 특성에서의 차이보다는 아마도 어머니 양육경험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첫째아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쌓이는 실질적인 양육지식이나 양육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험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둘째아 어머니들에 비해 경험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며, 자신이 자녀를 맡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영아 어머니들에 대해 적극적인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보육시간, 보육이유 등에 따라서는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양육죄책감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성정원, 2011; 노현정, 정태연, 2004)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취업모들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공보육의 확산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의 보편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취업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던 시기와는 달리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취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로 인해 장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이 줄어들었을 수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자녀 때문인지 혹은 부모 때문인지에 따라 양육죄책감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성과 더불어 보육시설 이용에 대해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교사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보육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정보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때 자녀에 대한 혹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방식이 아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 등을 독려하는 방식으로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양육죄책감은 실제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양육행동을 하는가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기대와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습득하는 것 외에 심리적인 격려나 자기성찰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양육죄책감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설명변량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한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 이외에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죄책감의 경감을 위해 교사의 지지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노력과 더불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즉,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대면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자녀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사 및 보육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흥미롭게도 교사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교사에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양육죄책감 경감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혹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어머니들이 양육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데에서 죄책감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Mann & Thornburg, 1987). 따라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적극적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낮출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가정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보육만족도가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김나희(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보육프로그램의 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애정, 그리고 시설의 근접성 등 4개 문항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 등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죄책감은 자녀와의 분리 자체에서 오는 부분도 있겠으나 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족, 시설에 대한 정보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 등도 일부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심미적으로 관리하고,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머니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서 표집되었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의 연령대는 만 0~6세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그에 따라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양육죄책감의 내용

을 동일 개념으로 포괄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유아기 자녀의 보육시설양육은 보육의 개념을 넘어 유아교육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죄책감의 구체적 내용은 영아기 자녀에 대한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의 내용 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교사의 정보적 지원 간에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결과, 분석에 무리는 없었으나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즉, 교사의 정보적 지원과 양육죄책감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 정보적 지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적 지원이 정서적 지원과 상관이 있어 그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정보적 지원이 양육죄책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원의 순수한 영향력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높은 비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나 보육시설 만족도 이외에 교사-어머니간 상호협력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보육교사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보육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특히 교사와 어머니 간의 상호협력이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교사,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관점에서 양육죄책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 문헌

- 국가통계포털(2010). <http://www.kosis.kr>.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나희(2011). 부모의 보육시설만족도가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희(201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자, 김윤이(2011).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에서의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3), 441-457.
- 김영옥(2009). 한국 유아교육, 보육프로그램의 동향 및 과제. **아동교육**, 18(3), 55-68.
- 김영호(2004). 취업모의 양육죄책감 경감을 위한 어머니 역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대상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강기숙, 한세영(200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73-86.
- 김은영(2013).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죄책감 및 아버지 양육지원. 전남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영, 이주연(2014).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 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67-180.
- 김정아(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 한세영, 김연화(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3-184.
- 김정임(2009). 맞벌이 가정의 양육죄책감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활용도를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옥, 김경호(2009).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 서비스 활용이 양육죄책감과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9, 305-328.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민, 박정윤, 김양희(2006).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직장보육 시설과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4(6), 79-86.
- 김희경(2012).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우울감,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35-558.
- 노현정, 정태연(200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 차이: 양적 및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21-322.
- 박봉주(2006).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옥(1994). 탁아 및 취업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24-37.
- 박찬화, 나종혜, 권연희, 최목화(2013). 일일보육계획안에 따른 일과유형 분류 및 일과유형별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51(1), 45-57.
- 박희진, 문혁준(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정원(2011).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진숙, 조복희(1997).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5(2), 309-319.
- 신민호(1996). 유아모의 전공 및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정(2006).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한 고찰. **아시아아동복지연구**, 4(2), 79-95.
- 양병화(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연주(2009). 죄책감과 그 치유에 대한 연구: 죄책감의 심리학적 이해와 심리학적 이해의 상관

- 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애련(2006). 보육시설 및 운영 만족도에 관한 연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99-126.
- 이 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이운선(200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연, 이사라(2006).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기대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교사 간의 지각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05-917.
- 장인숙 (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자, 방희정(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95-112.
- 지성애(2007).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발달과 시설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3-43.
- 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2012). 첫 입소시기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과정 연구: 사회정서적 유능성, 외현적 내면적 문제행동, 조절문제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1), 149-168.
- Baruch, G. 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2*(3), 578-585.
- Cooklin, A. R., Giallo, R. D'Esposito, Crawford, F., & Nicholson, S. (2013). Postpartum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well-being: Longitudinal evidence from an Australian coh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618-628.
- Hock, E. (1984). The transition to day care: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n infant adjustment.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are setting: 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 (pp. 183-205). NY: Praeger.
- Hock, E., & Lutz, W. J. (1998). Psychological meaning of separation anxiety in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1), 41-55.
- Hock, E., McBride, S., & Gnexda, M.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4), 793-802.
- Hsu, H.-C. (200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paration anxiety in first-time mothers: Infant, mother and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7*(2), 113-133.
- Lutz, W. J., & Hock, E. (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s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1), 57-72.
-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4), 451- 464.
- McBride, S.,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07-414.
- Owen, M. T., Ware, A. M., & Barfoot, B. (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Rotkirch, A.(2009).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Weinberg, S. L., & Richardson, M. S. (1981). Dimensions of stress in early parent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5), 686-69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who use a day-care cent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examined the relative effect size of influences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with their parenting efficacy, satisfaction on the day-care center,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teachers, and mother's active interaction with day-care teacher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50 mothers whose infants and toddlers were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with infants who were younger than 3 years o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toddlers. Second, th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the first chi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children who were the second or the third child. Third, the emotional support from the day-care teacher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mother and day-care teacher are very important to reduce the mother's parenting guilt.

▶*Key Words* : *maternal guilt, teacher's support, mother's active interaction with teacher, satisfaction on the day-care center, parenting efficacy*

논문투고 2014. 04. 15.
수정원고접수 2014. 06. 02.
최종게재결정 2014. 06. 19.